

축산업계 동향

도계유통적용지역 확대고시

— 9월 1일부터 인천, 청주, 충주, 지역도 —

농수산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품 유통적용지역을 확대 고시했다.

농수산부고시 제3006호(78. 8. 5)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3075호(79. 7. 27)도 추가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의 인천시, 충북의 청주

시, 충주시로서 동고시는 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유통적용지역은 기존지역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9개 도시가 되는 셈이다.

금년도 하반기 부화장, 종계장 정기검사.

— 각종장부 비치를 촉구 —

농수산부는 8월 중순부터 금년도 하반기 부화장, 종계장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전국 종계장, 부화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군)별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종계장의 경우 (1)종계 보유 상황 (종계등록수수와 실사육수수) (2) 종란생산 및 반출상황 (3)관계대장 비치 및 기록과 정확한 보고유무를 검사하고, 부화장의 경우는 ① 종란 반입상자 ② 각종 위생시설의 운용상황 (소독관, 소각장설치등) ③ 입란, 부화, 배부상황 ④ 각종 대장비치, 기록 및 정확한 보고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미등록 종계장과 무허가부화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c/c 육계 무료 감별 실시

— 내년 2월까지 한국병아리감별회에서 —

유능한 고등감별사들의 모임인 한국병아리감별회에서는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c/c부

로일러를 무료로 감별해 주고있다.

한미 학원내의 유능한 고등감별사들이 1980년 2월까지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무료감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바라고있다.

한편 선진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c/c 육계를 암수구분, 분리사육하는 것이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다년간의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구분사육을 실시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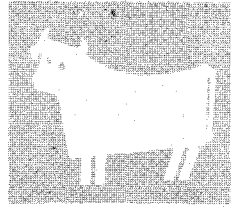
연락처는 ☎ (서울) 253-6210(한미학원)이다.

돼지고기값 하향조정

— 600g당 2백원씩 내려 —

농수산부는 8월 14일부터 돼지고기값을 서울과 도청소재지에서는 6백g한근에 1천원씩(농협직매장 포함), 시·군에서는 9백원씩 각각 2백원씩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그간 돼지고기 산매가격은 서울과 도청소재지에서는 한근에 1천 2백원, 일반시군은 1천 1백원씩 받았다.



돼지고기값의 하향조정은 양돈업계의 불황으로 최근 산지 돼지값과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크게 내린데 기인한 것이다.

농협, 자체자금조성

총 1 조 5 천 7 백억원

— 상반기 2 천 4 백억 증가 —

농협중앙회는 올상반기까지 1조 5천 7백 65억원의 자체자금을 조성, 같은기간중 2천 4백 20억원의 순증실적을 나타냈고 단기농사자금을 비롯 총 4천 9백 14억원을 공급했다.

농협에 의하면 올상반기중 농업자금 공급 실적은 총 4천 9백 17억원으로 같은기간중 공급계획 4천 8백 82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공급액은 올해 연간 공급계획 8천 1백 46억원의 60.3%, 작년 한해 공급액 6천 4백 67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요 부문별 농업자금공급실적을 보면 단기농사자금 1천 2백 41억원, 농업개발자금 1백 63억원, 농촌주택개량자금 6백 64억원, 수출지원자금 3백 14억원, 조합육성자금 93억원등이다.

한편 농협은 이러한 농업자금의 공급확충을 위해 자체자금조성확대를 적극추진중인데 지난 6월말 현재 자체자금 조성실적이 1조 5천 7백 65억원으로 작년말 현재 1조 3천 3백 45억원보다 2천 4백 20억원의 순증실적을 나타냈다.

자체자금에 있어 농촌저축은 작년말현재 7천 6백 3억원에서 8천 5백 64억원으로 9백 61억원이 순증했고 도시저축은 5천 7백 42억원에서 7천 2백 1억원으로 1천 4백 59억

원이 순증한것으로 집계 됐다.

농협은 금년말까지 1조 7천 5백 95억원의 자체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협은 자체자금조성확대를위해 농촌저축에있어서는 시범 1조금고를 9천개에서 1만 3천 5백개로 확대육성하고 출자 1천억돌 파운동을 전개하며 농산물 판매대전의 통장 거래풍토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도시저축에 있어서는 저축추진운동의 생활화와함께 10억원미만 군조합 일소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축산진흥기금조성 차질우려

— 축진, 쇠고기수입중단으로

판매수입금줄어 —

축산기반구축을 위해 수입축산물판매수입금, 사료원료 수입가격 차액납입금 등을 재원으로한 축산진흥 기금 조성이 쇠고기수입중단,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연초조성계획보다 크게 미달되고있다.

축산진흥회에 의하면 올해 축산진흥기금 조성목표를 당초 5백 9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2백 70억원을 조성, 45%의 실적밖에 나타내지 못했고 제반 여건이 더욱 불리한 하반기상황에 비추어 올 진흥기금조성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쇠고기 국제시세가 연초C&F기준 t당 1천 8백달러선에서 최근 2천 3백달러를 넘어섰고 옥수수가격도 연초 t당 1백 26달러에서 최근에는 1백 8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1천 8백달러선에서 구매했던 수입쇠고기

축산업계 동향

도 현재재고량이 얼마남지않아 국내수급조절을 위해 추가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번 유가인상으로 해상운임이 대폭상승, 축산진흥기금중 70%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쇠고기 판매수익금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옥수수가격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구매한 41만t도 구매가격이 t당 1백46달러로 국내공급가격 1백35달러보다 11달러나 높아 지금까지 이를 보전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사료가격 안정기준이 1백35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에서 상당액이 지출되지 않을수 없을것같다.

이에따라 축진은 우선 올해 기금조성목표를 당초계획보다 50억원이 줄어든 5백43억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안정된 기금확보를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같이 축산진흥기금조성에 차질이 우려되자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농민에게 지급되던 송아지생산장려금을 폐지하고 국내 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수입옥수수 공급가격도 인상할것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의 경영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자급을 계속 떨어져

농협보고서, 70년85%에서 작년61%로

농협중앙회는 사료의 해외의존율이 대폭증가, 농후사료의 경우 국내자급율이 지난 70년 85%에서 78년 61%로 감소했고 오는 91년도에는 36%에 불과할 전망이다. 축산진흥시책의 성공적추진을 위해서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방안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우리나라사료수급 동향과 당면과제」란 보고서에서 가축사육경향이 초식이

축인 소, 젖소 보다 농후사료를 많이 소모하는 닭, 돼지로 바꾸고 양축경영형태도 농가 부산물 소비의 부업화에서 탈피, 전업화·대기업화함에 따라 농후사료수요량이 격증, 국내 사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점에서 사료수급에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농후사료소비량은지난70년2백41만9천t에서 78년 5백76만1천t으로증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유통사료와 농가자급사료 비율이 47대53에서 66대34로 바뀌었고 동기간 중 유통사료는 2백33%가 증가한 반면 자급사료는 52.1%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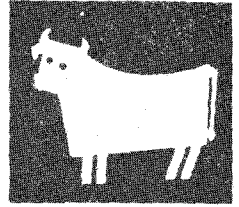
특히 유통사료중 배합사료의 비중은 70년 46.9%에서 78년83.2%로 크게 늘어나 배합사료 주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국내자급율은 불과 6.7%에 불과, 옥수수수입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료자급율이 계속 저하되는것은 국내산 사료원료가 품질 가격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료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특히 양질 사료의 생산기반인 초지조성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사료용 곡물의 품종 개량및 재배기술향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며 벵짚, 왕겨 등 농가부산물의 사료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리의 사료화를 적극 추진, 수입옥수수의 대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된 사료수급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현재의 경쟁입찰방식을지양, 현지구매 및 장기구매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돈육수출 재개

— 가격안정위해 일본으로 —

축산진흥회는 돼지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매 비축한 800M/T의 돈육중 114M/T을 지난 8월15일 선적하므로서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축진은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계속 수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주지역 가축방역 조사단 파견

— 가축및 축산물 수입금지

해제 여부 검토위해 —

농수산부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의거 우제류동물 및 축산물 수입지역을 제한하여 왔으나 구주지역 국가중 가축구제역이 근절된 국가에 대하여 조사단을 8월 4일 부터 24일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스위스, 일본등지에 파견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

사용지침 하달

— 농수산부, 항생물질제제등

사용한도량규제 —

농수산부는 배합사료에 각종 항생물질제제, 구충제, 설파제 등의 사용방법과 사용한도량을 정한 지침을 관련업계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닭의 경우 어린병아리, 중 대추, 종계, 산란계, 육계전·후기사료와 돼지의 포유돈, 육성돈및 비육돈 전기사료와 어린송아지용 배합사료에는 별도로 정하는 양의 상기 동물약품을 첨가할 수 있으나 기타 배합사료에는 첨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착유중인 젖소와 유산양의 배합사료 또 도살 전 7일간에 사용하는 배합사료에도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농지소유상한선 10정보로

— 이 농수산부장관,

정기국회에 상정할예정 —

이희일농수산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선을10정보도 인상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을 제정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장관은 호당 농지소유상한 3정보로 되어있는 현행농지관리법이 사실상 死文化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농업여건의 변화등을 감안 할때 현실에 맞는 새로운 농지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농업기계화 촉진등 전환기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소유상한을 10정보로 확대 할 방침아래 오는 정기국회에 관계법을 상정 하기전에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집약, 합리적인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개발목장상속세면제방침

농수산부,관계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농수산부는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 개발하는 목장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도록 재무부당국과 합의, 오는 9월 정기국회

축산업계 동향

에 관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육류가격폭락으로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감안, 민간자본 유치로 축산업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 피상속인이 새로 개발하는 목장 초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되 신규개발한 목장을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상속인은 5년이상 경영하지 않으면 이같은 특혜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한 상속세법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이같은 상속세 면제에 있어 목장 초지의 면적과 가족두수를 어떤 규모로 제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목초씨 18종 선발

—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토질에 맞는 우량품종으로 —

농촌진흥청은 「오차드 그라스」등 우리나라 토지 여건에 알맞는 6개 목초종자 18개 품종의 우량목초씨앗을 선발하는데 성공했다.

농진청은 지난 74년부터 5년동안 서독연구진과 공동으로 수원·고령지·제주도등 3개 지역에서 외국에서 도입한 3백 55개 품종을 시험재배 이중 시험성적이 우수한 오차드그라스 3품종, 톨레스큐 4품종, 티모시 2품종, 이타리안라이그라스 4품종, 알팔파 3품종, 라디노클로바 2품종을 우리지역 특성에 알맞는 우량품종으로 선발했다.

해바라기粕 첨가사료 계란의 Cholesterol 함량줄여

— 소장의 용모(villi) 세척작용으로 체내 cholesterol 함량을 감소시키는작용 —

미국 Mississippi주 South Central Poultry Research Laboratory의 James L. McNaughton박사는 산란계사료에 알팔파, 옥수수섬유, 해바라기박섬유 등을 첨가하여 조섬유 함량을 조정한 결과 계란노른자의 Cholesterol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즉 산란계 사료에 해바라기 박을 첨가하여 이로 인한 조섬유함량이 8.8%되게 하고 이를 산란계에 급여한 결과 대조구의 경우보다 계란 노른자의 Cholesterol 함량이 13.3%나 적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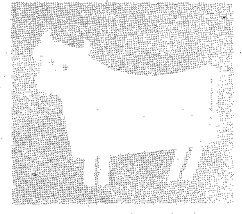
McNaughton 박사는 사료중의 조섬유가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거친 조섬유가 산란계의 소장을 지나는 동안 Cholesterol이 축적되어 있는 용모(Villi)를 청소해서 산란계 체내의 Cholesterol 함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계란중의 Cholesterol 함량이 감소되는 것 같다고 한다.

축진 홍보영화 「부자가 따로있다」 최우수 홍보영화로 선정

— 축산의 중요성을 엮은 극영화 —

축산진흥회의 홍보영화 「부자가 따로있다」가 문화공보부의 홍보영화 심사에서 올상반기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부자가 따로 있다」는 축산의 중요성을 엮



은 16mm 40분짜리 극영화인데 축진은 지난 1월부터 축산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영, 그동안 3백70회에 걸쳐 6만여명이 관람했다.

돼지수매 일부업자 독점

— 영세양돈농가위해 방법개선되어야 —

축산전문가들은 돼지가격의 하락을 막고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중인 돼지수매가 일부 기업양돈자들에 의해 수매물량이 독점되고 있다고 주장, 영세양돈농가를 보호하기위해 수매방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전문가들에 의하면 축산진흥회가 농협을 통해 하루 5백마리씩 수매하고 있으나 수매가격이 생돈으로 90kg짜리 규격돈이 kg당 8백원, 비규격돈은 7백30원씩으로 최근 시중의 생돈거래가격인 5백50원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매를 할 경우 시중시세보다 1마리당 최소한 1만5천원은 더 받을수 있어 양돈가들은 서로 수매물량을 확보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세력이 강한 기업양돈가들만이 외부압력세력까지 동원하면서 출하물량을 차지해 당초 양돈농가를 보호하기위한 돼지수매시책이 빗나가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양돈가들의 자제를 당부하는한편 현재 약 50만마리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잉생산물량에 비해 하루 5백마리의 수매로는 가격안정을 기할수없다고 지적, 수매물량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매가격도 시중시세보다 큰 차이를 두지 말고 수매장소까지의 운반비등을 감안, 시중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연동제로 실시할것을 주장했다.

13개 농수산물유통 단속

— 농수산부, 서민생활 보호 위해 —

농수산부는 서민생활보호대책의 하나로 쌀, 콩, 옥류, 고추, 고등어등 13개농수산물목에 대한 유통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25개 주요생필품중 이들 13개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한결과 밀가루, 마늘, 명태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쌀, 콩, 옥류, 마늘, 고추, 고등어등이 ▲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 정부미의 전매나 위장관매행위 ▲ 옥수수외 항구체화증가 ▲ 일부정육점의 가격위반및 부정거래 행위등으로 아직 유통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빚고있는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본부및 농협 각시도 관계직원등을 동원하여 단속을 계속 실시, 특히 영업정지허가취소등 행정규제이외에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개농기 관세면제

— 정부, 곡물건조기등 1일부터 소급 —

정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방제기등 4개농기체에 대한 관세면제, 8월 1일부터 소급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15%로 되어있는

축산업계 동향

곡물건조기, 방제기, 수확기, 탈곡겸용바인더 등 4개 농기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입을 확대, 농업기계화를 더욱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위해 도입되는 관련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영농기계의 국산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우 2백64두 입식

— 충북, 앵거스·헤어포드 등 —

충청북도는 8월21일 앵거스 및 헤어포드 등 육우 2백64두를 도입, 이를 각 시군에 배정, 입식토록했다.

이번에 배정한 도입육우는 1두당 32만5천원으로 30만원은 용자하고 2만5천원은 농가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시군별 배정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두)

▲ 청원=1백70 ▲ 영동=19 ▲ 옥천=50 ▲ 진천=25

납유거부 현상 심화

— 가공업계, 항생물질 등 검출핑계 —

우유의 대장균검출 소동, 소비 절약풍조 등에 영향을 받아 최근 유제품 소비량이 격감, 유가공생산이 위축되자 유가공 업체의 낙농가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낙농업계에 의하면 요즘 원유의 가공생산량이 줄어들어 일부지역에서 원유체화현상을 빚는등 원유생산량이 과잉되자 이를 구매하는 유가공업체들이 산, 항생물질검출 및 지방함량부족등을 이유로 납유(納乳)거부현상이 빈

번히 발생, 낙농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여름철이면 산채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는 원유가 체화됨으로써 유가공 업체측의 납유거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제품 소비량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지않는 반면 지난 6월에 비해 7월 한달 동안 20%로정도나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같은 소비위축에 비해 우유를 생산할 젖소의 수는 지난 78년초 10만1천마리에서올 연초에는 13만5천마리로 증가한데다 올 여름철 유제품소비확대에 대비 탈지분유 1천t까지 수입함으로써 원유의 수요공급면에서 공급량이 많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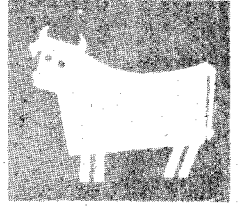
이에따라 유가공업체들이 원유의 납유선고정화조치를 악용, 임의로 납유물량을 조정함으로써 낙농가들만 피해를 보고있어 관계당국의 낙농가 보호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도입육우 사육 만전

— 경남, 기반구축 종합대책 마련 —

경상남도는 도입 육우 사육기술 미흡과 인식부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고성, 사천등 해당군에 시달하고 쇠고기 증산을 위해 육우증식, 기반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상도내에는 고성,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등 7개군에 1천2백두의 도입육우가 사육되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산 육우 1천1백두를 도입



농가에 입식시킬 예정인데 이번에 도입된 육우가 성질이 거칠고 난폭하여 다루기가 어렵고 사료를 많이 먹으며 5년동안 팔지 못하게 되어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축청당국은 이에따른 대책을 올추계분 도입육우는 소값및 사육여건이 회복될때까지 민간기업 목장에만 입식시키기로 하고 육우 입식농가에는 정부양곡부산물과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기서비스센터 증설

— 농협, 10월말까지 357개소로 —

농협중앙회는 오는 10월말까지 농기구 서비스센터를 3백57개소로 늘리고 이중 1백65개소는 표준화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에 의하면 매년 농기구의 공급갯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이 농기구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용자 5억 2백만원, 보조 4억 1천 3백만원을 확보하고 농기구 서비스센터를 증설해 나가기로했다.

농기구 서비스센터의 증설계획을 보면 올해 80개소를 신설, 현재 2백77개에서 3백57개소로 늘릴계획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80개소와 기존 서비스센터 50개소등 1백30개소는 표준화 시설을 갖춰 표준화시설을 현재 35개소에서 1백65개소로 늘릴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새마을 소득증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진립되는 농기구 서비스센터를 표준화시설로 유도하기로 했다.

산란사료에 모래혼합시 사료이용효율 증진

— 산란율상승과 폐사율 감소 —

가금류는 사료중에 Energy나 단백질의 함량이 정상 또는 그 이상의 경우보다 낮게 들어 있을 때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Harms(1964)는 산란사료에 모래를 12, 24, 36%의 비율로 혼합하여 백색레구혼 산란계에 급여한 결과 계란 한개 생산에 요소된 Energy량이 대조구의 경우보다 적었으며 산란율(모래12%, 24% 혼합구)도 높았다고 보고 했다.

산란사료에 모래혼합 비율별 산란율

모래혼합 비율(%)	생산에너지 (Kcal/kg)	H-D 기준산란율 (%)	계란 개당사료 소비량(g ¹)	계란 개당사료 소비량(g ²)	계란개당 칼로리
0	2,112	81.9	130.0	130.0	275.2
12	1,848	83.7	139.8	123.0	259.0
24	1,584	84.3	154.6	117.5	245.4
36	1,320	77.0	193.6	123.9	256.0

1) 산란사료와 모래를 혼합한 사료의 총무게

2) 급여사료에서 모래를 제외한 순 산란사료만의 무게

또한 Texas A & M대학의 Hooge등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발표한 시험결과에 의하면 산란사료에 5, 10, 15%의 비율로 모래를 혼합한 사료를 산란계에 급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다. 즉 이들 모래혼합 사료를 산란개시후 24주 이내의 산란계에 급여한 결과 모래 5% 혼합의 경우만 산란율이

축산업계 동향

대조구보다 높았으나 산란개시후 24주 이상 된 산란계에 급여한 경우는 모래 15% 혼합의 경우가 가장 높은 산란율을 보임과 동시에 폐사율이 가장 낮았다.

산란사료에 모래혼합 비율별 사료효율

모래 혼합 비율(%)	H-D 기준산란율(%)		B군의 종로시 체중(g)	B군의 폐사율(%)
	A ¹	B ²		
0	87.1	74.0	1,793	6.7
5	87.6	75.0	1,782	5.3
10	86.4	75.2	1,657	2.7
15	85.6	76.5	1,629	1.3

- 1) 산란개시후 24주 이내에 산란계군
- 2) 산란개시후 24주 이상의 산란계군

이상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Hooge는 산란 사료에 적정비율의 모래를 혼합하면 난가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산란율과 사료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란사료에 대한 모래혼합화율은 산란시작후 16주까지는 4~5%, 다음 16주 동안은 8~10%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15%가 알맞다고 발표했다.

대만돼지값 30% 하락

- 옥수수 수입도 20% 줄일예산 -

대만의 돼지 두수는, 현재, 지난해 보다 21%가 증가하여 월간 10만두의 과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 수요 감소와 수출부진(금년 상반기 2,000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0%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

라서 kg당 생돈가격도 지난 두달 사이에 605원에서 430원(생산비 564원)으로 무려 30%가 떨어졌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만 중앙은행은 돈육수출업자에게 67억원을 풀어 당분간 비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두당 6,700원씩 하던 도축세(1978년 수입 340억원)의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미구매사절단에 의해 74만톤의 옥수수(톤당 평균 C&F 185\$로 79.8~80.3사이 선적)와 2만 6,000톤의 보리(톤당 평균 F O B 157\$)를 구입한 대만은, 요즈음의 불황 사태와 금후의 추이를 전망하면서 당초 계획만 금년도 316만톤 옥수수 수입을 256만톤으로 감축하려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옥수수 가격안정기금제도(톤당 C&F 160\$ 기준)도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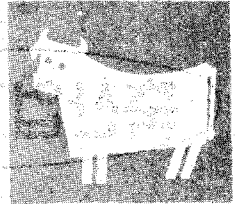
미국, 옥수수작황 호조

- 8월 1일 현재

전월대비 7%증가-

미농무성이 8월 10일에 발표한 8월 1일 현재 현재 옥수수 작황은, 그동안 계속된 기상순조로 7월 1일 작황보다 무려 7%(1,134만톤)가 증가한 1억 8,057만톤 생산 예상이 가능할만큼 좋아졌다. 이는 사상기록인 작년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수량이다. 수수 역시 전년보다 4% 늘어난 1,979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맥은 78년 수확에 비해 19%증가 식용곡물(소맥, 라이, 쌀) 전체로는 18% 증가, 돼두는 전년의 116%인 5,795만톤 등, 8월 1일 현재의 작황은 대풍을 예상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79년 곡물생산은 15억 1,000만톤으로 78년 보다 4% 감소예상이며, 특히 소련은 작년(2억 3,720만톤)보다 22% 적은 1억 8,500만톤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의 풍작 예상이 반드시 금후의 재고 및 가격 호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미국의 금년 작황은 앞으로의 석달동안 기상여하가 최종 결정할 것이므로 불확실성은 아직도 크기만 하다.

영농기술 검정시험 실시

— 농촌진흥청, 9월중에 작목별로 —

농촌진흥청은 영농기술훈련규정에 따라 우수한 시범영농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농기술검정시험을 9월중에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 작목별 전문기술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한하며 합격자는 영농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는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원서는 각 시험일 3일전까지 각도 농촌진흥원과 각시군 농촌지도소 및 각도 농민교육원에서 교부하며 원서접수는 농촌진흥원에서 받는다.

검정시험 종목 및 장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시험장소)

- △ 채소반 : 9월 1일 (수원 원예시험장)
- △ 양잠반 : 9월 15일 (충남 농민교육원)
- △ 비육우반 : 9월 22일 (강원 농민교육원)
- △ 낙농반 : 9월 29일 (수원 축산시험장)
- △ 양돈반 : 9월 29일 (경북 농민교육원)

한라사료, 양돈강습회 성료

— 7월21일 제주도문화회관에서 —

대영농산(주)(대표:이석현)은 제주도청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양돈 전문가 4명을 초청 하계 양돈강습회를 개최했다.

7월21일 제주도 문화관에서 개최된 이날 강습회는 도내축산업자, 관계기관, 단체, 학계등 3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강의는 益子正巳씨의 일본양돈의 현황외에 번식돈 사양관리와 새로운 양돈기술 SPF양돈의 실제, 돈사시설과 기구 기재등의 강의가 있었다.



옥수수증산 전망 밝아

— 농촌진흥원, 신품종 수원47호 작황 좋아 —

강원도 농촌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채종 시험재배한 옥수수 신품종 수원47호가 지금

축산업계 동향

까지 다수확 품종으로 알려진 수원 19호보다 채종량이 3배 이상에달해 옥수수 증산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이 2년전 수원작물 시험장에서 KS5 호와 수원29호를 교배, 새로 개발한 다수확신품종인 수원47호를 춘천시 도진흥원채종시험토 3천평에서 시험재배한결과 수원 19호는 채종량이 10a당 1백17kg인데 비해 수원47호는 3배인 3백50kg생산이 무난한 것으로 작황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강원도 농촌진흥원은 내년부터 도내 옥수수재배농가에 수원47호를 널리 보급키로 했다.

한국바이엘 금년도 후반기 장학생명단 발표

— 9개대학 11명에 등록금 전액지불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김길원)은 금년도 후기 축산장학생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11명은 8월말까지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불된다.

강원대 축산학과	정 순 현
전국대 축산학과	이 상 회
경북대 수의학과	박 영 길
경상대 축산학과	최 영 희
서울대 수의학과	김 두 우
서울대 수의학과	김 종 우
서울대 축산학과	이 성 규
인하대 조선공학과	이 순 갑
전남대 축산학과	김 광 현
전북대 축산학과	박 강 희
충남대 축산학과	최 갑 복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특별 세미나 개최예정

— 9월 1일 10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오세정)는 하계특별세미나를 오는 9월 1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양소재 가축위생연구소 강당에서 대한양계협회의 한국화이자(주) 후원으로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원은 물론 가금질병에 관심이 많은 업계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한다.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에 있어서 주요가금질병의 발생과 예방치료대책

(Dr. Larry Mc Dugald) 미국 Georgia 대학교수)

○가금의 콕시들행에 관한 최근연구 동향

(Dr. Donal. P. Conway) 화이자 본사 농업개발부 기술담당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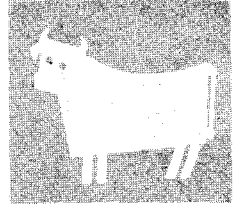
한국—캐나다

축산세미나 개최예정

— 9월10일부터 푸라자호텔에서 —

농수산부는 캐나다 정부와 함께 한국종축개량협회 후원으로 캐나다의 동물검역 제도, 육우 및 젖소의 공급능력, 품종개량및 등록제도를 국내 양축가들에게 숙지시키기위하여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푸라자 호텔에서 축산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9월10일, 11일 양일간에는 세미나가 실시되고 12일에는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개별면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축산학회지 전세계 과학계 로의 논문발표 국내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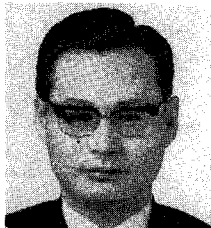
— 개인별로는 한인규교수가 6위 —

한국과학정보센터(소장: 金斗弘)는 최근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에 의한 관계과학자료의 수집책자로 화학정보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化學抄錄集」(Chemical Abstracts)에 실린 우리나라 과학자, 학회, 교육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잡지별 인용회수에서 한국축산학회지는 대한화학회지,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이어 3위의 인용회수를 보였으며 한인규(서울농대교수, 한국축산학회장) 교수는 78년 한해와 금년 3월사이에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국내 6위를 차지하여 한국 축산학이 세계수준임을 과시하였다.

최근 해외로 논문발표 회수가 늘어나고 국제학술대회로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는 한국축산학회는 관련기관과 업계의 지원으로 성장, 현재 9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있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축산학회가 되었다.

한편 화학초록집은 순수한 화학계통 뿐만 아니라 화학과 연관된 모든 분야의 연구논문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지난 77년 2월부터 78년 4월 사이에 전세계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한인규〉

수입쇠고기 대량소비처에만 판매

— 일반정육점서 몰래 취급하는곳도 —

쇠고기값 안정과 소비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1개동마다 마련된 일부 농협직매장에서는 수입쇠고기를 불고기집 등 대량 소비자들에게만 팔고 적게 사는 일반시민들에게는 팔지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3월에 불어닥친 쇠고기파동을 기회로 일반정육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팔지 못하고 모두 농협직매장에서만 취급 하도록 했는데 일반정육점에서까지 수입쇠고기를 사와 한우고기보다 2백원이 싼 6백g당 2천4백원에 팔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 단속반들은 위생시설이나 가격위반등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등 미온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유한양행, 치오피드 20~200에 관한 세미나

유한양행(대표: 조권순)에서는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부터 동물전용성장촉진 항생물질인 치오피드 20~200에 관한 세미나를 프레이저던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양축가와 관련업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물에서 항생제의 사용효과와 치오피드 소개, 치오피드의 효력에 관해 집중 논의되었는데 강사는 한인규박사(서울대농대)와 시마모도박사, 니카다박사(일본藤澤藥品)였다. 특히 이날 한인규박사는 "NRC

축산업계 동향

사양표준과 항생제 사용효과”라는 연계를 통해 금년 7월초에 발표된 1979년 돼지를 위한 NRC 사양표준을 국내에 알렸는데 돼지의 NRC 사양표준 79년도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5 kg의 생체중을 갖는 새끼돼지의 영양소요구량이 추가되었다.
2. 생육단계별로 예상되는 사료효율(g, gain/kg, feed)과 사료요구율(feed/gain)이 설정되어 추가되었다.
3. 광물질에 있어서 Ca, P, NaCl의 요구량만이 각 돼지의 생육, 생태별로 규명되어지고 기타의 미량원소는 돼지 전체에게 모두 적용되던것을 potassium 등 8개 광물질의 요구량이 돼지 생육생태별로 규명 보완 되어졌다.
4. 개정전까지 일부 비타민 및 광물질의 요구량을 확정하지 못하고 두었던것을 모두 확정 보완하였다.

동방화학 순회세미나 성료

—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



동방화학 (대표: 이각모)에서는 CRD, CCRD와 링크스펙틴-100에 대한 순회세미나를 지난 8월 6일 오후 청량리소재 신라에식장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업존회사 기술부장 Dr. Langford 박사가 초빙된 이날 세미나는 170여명이 참석 청량리에 개최되었으며 통역에는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김선중 박사가 맡았다.

동세미나는 서울에 이어 7일에는 대구, 8일에는 부산에서도 개최되었다.

외곡도입부담가중

— 농수산부, 울들어 옥수수값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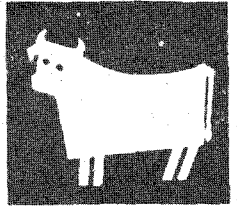
크게올라 —

울들어 국제시장의 곡물가격과 선임이 급등함으로써 주곡을 제외한 기타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외곡도입에 따른 外貨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농수산부가 조사한 「국제곡물가격및 선임동향」에 따르면 t당 FOB가격기준으로 ▲ 옥수수가 작년의 연평균 1백5달러에서 7월중순 현재 1백38달러로 31.4% 상승한것을 비롯 ▲ 소맥이 1백42달러에서 1백80달러로 26.8% ▲ 대두 2백59달러에서 3백4달러로 17.4% ▲ 쌀 3백7달러에서 3백12달러로 1.6%씩 올랐다.

또한 곡물선임도 크게올라 t 당 기준으로 ▲ 미국 서부해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운임이 작년의 연평균 16~18달러에서 7월중순현재 28~30달러로 75~66.7% ▲ 미국 멕시코만지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운임이 17~19달러에서 30~35달러로 87.5~84.2%나

축산업계 동향



폭등했다.

농수산부는 올해 말 옥수수, 콩 등 외곡도입량을 지난해의 3백60만1천t에서 4백51만4천t으로 25.4% 늘려잡고있고 비축용식량 확보를 위해 외미50만t을 수입할계획이어서 외화부담이크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축산진흥계획 확정

— 경남, 91년까지 1천1백15억들여 —

경상남도는 오는 91년까지 1천1백15억원을 들여 진주를 중심으로한 서부지역은 한우, 육우, 낙농육성단지, 마산을 중심으로한 중부지역은 양돈, 양계, 비육우, 낙농단지, 울산을 중심으로한 동부지역은 낙농, 양돈, 양계를 위주한 축산진흥 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계획은 지역여건에맞는 특색사업을 중점 육성, 축산물 증산기반 구축과 가축개량을 통한 단위생산성을 높이고 사료공급기반 확충과 수급원활, 유통구조개선 방역체제개선, 장비현대화등을 목표로 하고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증식 : 한우는 3백53억원을 투입, 현재 28만7천마리에서 91년까지는 40만1천마리로 늘리고 육우는 45억원을 들여 현재 2천4백마리에서 91년까지는 6만2천9백마리로 증식.

▲낙농진흥 : 3백40여억원을 투입, 젖소를 현재 1만3천마리에서 91년까지 7만2천6백마리로 증식.

▲양돈 : 1백5억원을들여 91년까지 민간 종돈장을 현재 2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양돈

장을 10개에서 40개로, 비육돈 단지를 13개에서 1백19개로 각각 늘려 현재 28만7천마리의 돼지를 86년에 34만6천마리, 91년 40만1천마리로증식.

▲가축개량사업 : 1백11억원을 들여 한우번식율을 73%에서 80%로, 정육율을 40%에서 44%로, 젖소번식율은 83%에서 87%로 각각 올린다.

동물약품협회,

품질관리세미나 성료

— 8월24일, 신문서관에서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 최죽송)는 동물약품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8월24일 오후에 신문서관 대강당에서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관련업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습회에서는 한국바이엘화학(주) 개발부장 이갑재박사와 한국화이자(주) 품질관리부장 신철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실례」를 I·II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한국바이엘화학
이갑재 개발부장)



(한국화이자
신철 품질관리부장)

축산업계 동향

한국화이자 가족질병세미나 개최

— 8월29일, 롯데호텔에서 —

한국화이자<주>(대표:김중배)는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최근 가족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8월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에머랄드홀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조오지아대 Dr. Larry R. McDougald 교수와 Dr. D. P. Conway, 서울대 장두환 교수가 강사로 초빙된 이날 세미나는 15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서울에 이어 8월30일(목)에는 부산 비치 호텔에서 9월 1일에는 안양가족위생연구소에서도 각각 개최되었다.



업계 단신

○ 오봉국(서울농대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에서 보유하고있는 가족의 유전자의

보존과 이용, 가족개량의 협의를 위해 일본 동경 築波大學에서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SBRAO (아시아·태평양지역 동식물육종 협의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키 위해 출국. 발표주제는 「한국의 가족개량 현황과 방향설정」



(오봉국)

○ 수원계우회: 지난 8월 6일 원천유원지에서 제 2회 정기총회및 임원개선.

회 장: 이재원

부회장: 김선기, 김기수

감 사: 권대성, 최두훈

임 원: 강석부, 조영수, 이종윤, 이종화, 송상정, 김동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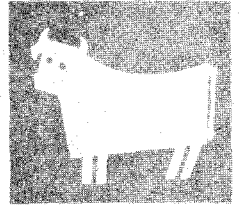
○ 윤신근(전 바이엘화학 대전주재원): 전주시 전동 2가 51번지(중앙국민학교입구)에 전주약품상사개설 ☎(전주) 2-5929

○ 원국산업배합사료: 전남 광주지역 서비스를 위해 광주시 서구 월산동 55-3에 씨비스센터를 개설 ☎(광주) 3-1328, 4-6607
경영자: 이관범.

○ 서해농산<주>(대표:김훈동): 경기지역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수원사무소 개설 ☎(수원) 2-3415, 3435

○ 대영농산<주>(대표:이석현): 대성미 생물후원으로 8월13일 제주시에서, 14일 서귀포에서 하계 양계질병 강좌 실시.

축산업계 동향



이 전

◇ 서부사료<주> : 현대적 시설의 공장 준공에 따라 인천시 북구 작전동 744-8로 이전 ☎ (인천) 5-1889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최영규)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8(세브란스빌딩5층)으로 이전 ☎ (22)3858, (23)1834

전화번호 변경

◇ 협신가축약품(대표: 임치환) : (이천) 3585로 전화번호 변경.

◇ 동일프라스틱 공업사 : (대구)33-1381로 전화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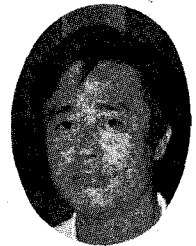
업계 인사

◎ 제일사료(대표: 이희섭) : 아래와 같이 인사이동

- 본사영업부장 : 옥춘광(전 서울직매소장)
- 서울직매소장 : 박지현(전 대구직매소장)
- 대구직매소장 : 장기정과장



<옥춘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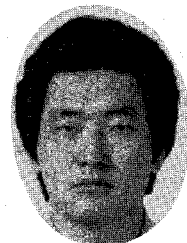
<유제만>

◎ 한일사료<주>(대표: 차두홍) : 영업과장에 유제만(서울대 수의대졸)씨를 기용.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영업부에 성범용(강원대 축산과졸)씨와 고태영(서울대 수의대졸)씨들 특채

◎ 용강산업(대표: 박재현) : 영업부장에 이용린(전 삼원물산)씨를 기용

◎ 대한사료<주>(대표: 이덕우) : 영업과에 최명래(건대 축대졸)씨를 특채



< 최명래 >